Glob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Weekly

KMI

지구촌 해양·수산

제 364 호
2007. 4. 9

수산 · 환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137-8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Tel. 02) 2105-2740 / Fax. 02) 2105-2759

목 차 : 지구촌 이슈 / 주요뉴스와 분석 / 간추린 지구촌 소식

지구촌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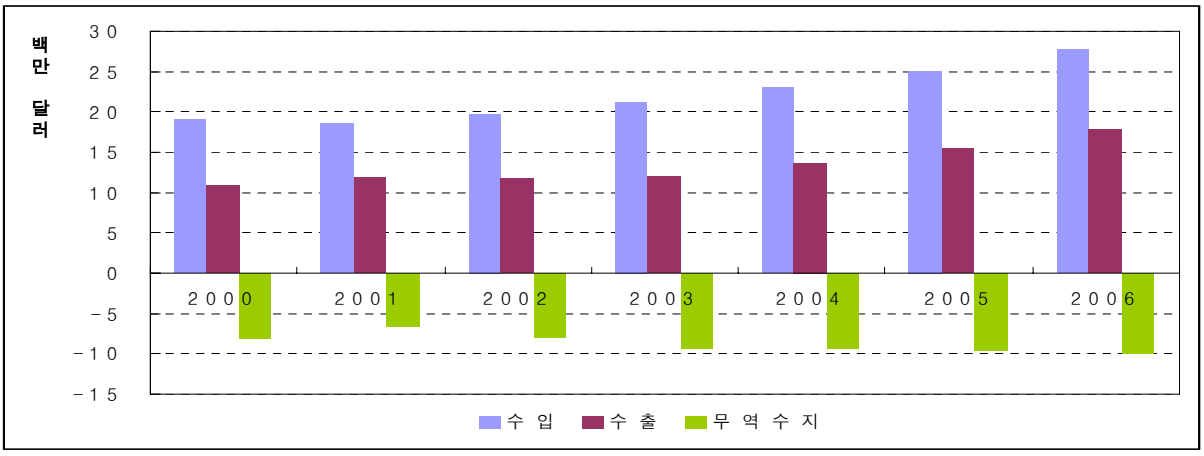
2006년 미국의 수산물 수출입 동향

2006년 미국의 수산물 무역 수지, 99억 달러 적자 기록

○ 2006년 미국의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9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의 96억 9천만 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2.7% 늘어났음

- 지난해 미국의 수산물 총 수출은 178억 달러이며 이 중 식용 수산물의 수출이 42억 4천만 달러(134만 5천 톤)이고, 비식용 수산물의 수출은 135억 2천만 달러로 나타나 비식용 수산물[1] 이 전체 수출의 약 76%를 차지하였음

【 미국 수산물 수출입 추이(2000년~2006년) 】



자료 : 미국 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수산물 교역 통계

1) 비식용수산물(unfit for human consumption)이란 인간의 소비로 적합하지 않은 어류 및 패류, 어류의 가죽 또는 화학물질 등을 일컬음

- 미국 수산물 총 수입은 277억 1천만 달러로 이 중 식용 수산물 수입이 133억 6천만 달러, 비식용 수산물(244만 9천 톤) 수입이 144억 6천만 달러로 각 각 48.2%, 51.8%를 차지하고 있음

수출 중 연육 상품 수출이 가장 두드러져

○ 미국령에서 생산되어 수출된 식용 수산물 수출은 39억 달러(130만 톤)[2]로 2005년보다(129만 톤) 약 1억 달러 늘어났음

- 신선·냉동 수산물 수출액은 31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음
- 신선·냉동 수출 품목 가운데 연육의 수출이 3억 7천만 달러(18만 톤)로 단연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연어 3억 5천만 달러(11만 2천 톤), 랍스터 3억 5천만 달러(28,000톤) 등이 수출되었음

○ 지난해 가공 수산물의 수출액은 2억 5천만 달러로 이 중 연어 통조림 수출이 1억 8천만 달러로 가장 높았고, 건조·염장·훈제 수산물의 수출은 1,800만 달러로 미미함

수산물 수입, 냉동어류>신선냉장>가공수산물 순으로 나타나

○ 2006년 미국의 식용 수산물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13억이 늘어난 133억 6천만 달러이며 물량으로는 245만 톤임

- 신선냉장 수산물 수입은 19억 3천만 달러이며 내수면 어류의 수입이 1억 6천만 달러(77,861톤)이고 해면 어류는 17억 7천 만 달러(44만 톤)임
- 냉동 어류의 수입은 50억 달러(112만 톤)로 전년 대비 17.4%가 늘어났으며, 그 가운데 냉동필렛 및 스테이크용 수산물 수입(28억 달러)[3]이 전체 냉동 수산물의 57%를 차지하였음
- 그 외 냉동 수산물 가운데 저서 어류(ground fish)의 수입이 8,500만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여기에는 대구(2,700만 달러), 명태(3,700만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가공 수산물로는 다랑어 통조림을 포함한 통조림, 염장·건조·훈제 수산물 및 캐

2) 위의 미국 식용 수산물 수출액 42억 4천 만 달러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국산 수산물은 미국 자체 내 생산(domestic origin)된 수산물과 미국에서 재가공을 거친 수산물(foreign origin)로 구분되는데 이는 미국 자체 생산된 수산물만 집계한 것임.(미국령 수산물이란 미국에서 생산, 가공을 거친 상품을 의미하고 미국내에서 재가공된 수산물이란 외국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미국에서 재가공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임)

3) 필렛 및 스테이크용으로 연어의 수입이 가장 많은 9억 8천만 달러(14만 톤)를 기록함

비어로 구분되는데 이 중 어류 및 갑각류 통조림 수입이 12억 6천만 달러로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는 염장 가공품의 수입이 8,5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명태 염장 제품과 청어가 각 각 1,100만 달러, 1,000만 달러로 비중이 가장 높았음

활어 수입, 관상용 어류에 집중

○ 비식용 수산물의 수입은 143억 6천만 달러로 2005년의 수입보다 12억 5천만 달러가 늘어났는데, 어유 및 간유를 비롯해 관상용 활어, 진주, 어분 및 사료의 수입이 모두 소폭 증가하였음

- 특이한 사항은 미국은 활어를 비식용 수산물로 구분하고 있는데, 2006년 미국에 활어 상태로 수입된 어종은 잉어(carp), 뱀장어, 송어, 관상용 활어 등으로 이 중 관상용 활어의 수입이 4,800만 달러로 전체 활어 수입의 80%를 차지하였음

미국-NAFTA[4]간 수산물 수입, 전년에 비해 2% 증가

○ 2006년 미국-NAFTA 회원국간 수산물 교역량은 수출 7억 8천만 달러(21만 톤), 수입 27억 달러(45만 톤)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수출은 2% 감소한 반면 수입은 2.3% 늘어났음

- 품목별로 살펴보면 신선가다랑어는 전년 수입이 전혀 없다가 2006년에 10만 톤 이상 수입되었으며 그 외 신선홍연어, 냉동 넙치, 신선대구류(cusk)가 각 각 전년 대비 8배 이상 수입량이 늘어났음
- 미국의 NAFTA 회원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 품목 가운데 냉동오징어의 수출이 46,374톤으로 전년 대비 30배나 늘어났으며, 그 외 청어 어란(냉동), 기타 어류(훈제), 기타 어류(건조) 품목의 수출이 두드러졌음

○ 한편 미국-NAFTA간 수산물 수입은 지난 3년 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미국의 NAFTA 회원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은 연평균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미국의 수산물 무역수지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3년 동안은 적자폭이 더욱 커졌음

4)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1994년에 발효되었음

【 미국- NAFTA 수산물 수출입 동향 】

단위 : 톤, 천 달러,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 증가율
수출	물량	233,015	225,715	209,201	-5.2
	금액	771,326	799,646	783,587	0.8
수입	물량	465,400	440,748	449,671	-1.7
	금액	2,592,948	2,640,396	2,701,023	2.1

주 : 위의 수치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수출입량을 의미함
자료 : 미국 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수산물 교역 통계 활용

- 한편 미국은 북미 인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수산물 수입이 지난 3년 평균 2%의 증가하였고 수출은 오히려 5% 감소하였음

<자료 : 미국 수산청 교역 통계 자료 활용>

주요뉴스와 분석

칭다오시, 수산물의 고차가공업 중점 육성

○ 칭다오(青島)시 경제무역부에 따르면, 올해 칭다오시는 수산물의 고차가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일 계획임

- 지난해 칭다오시의 가공수산물 매출액은 92억 7,000만 위안(1조 1,587억원)으로 전체 가공농산물 매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칭다오시의 목표는 지역별로 해면어류, 새우·게류, 패류·해조류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고차가공업을 육성할 예정임

- 청양(城陽)구와 죠우저우(膠州)시는 주로 해면양식어류, 원양어류를 대상으로 고차가공업을 육성하는데, 해면어류 물류시스템을 건설하여 연간 고차가공능력을 4만 톤 늘릴 계획임
- 로우산(嶗山)구, 황다오(黃島)구, 청양구, 지뭐(卽墨)시는 새우·게류를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새우·게류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등 연간 고차가공능력을 8,000톤 늘릴 계획임
- 로우산구, 청양구, 죠우난(膠南)시는 패류·해조류를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패류 제품과 해조류 건강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여 연간 고차가공능력을 1만 톤 늘릴 계획임

○ 이처럼 중국의 수산물 가공업은 최근 들어 저차가공에서 고차가공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로, 각 지역에서 고차가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의 이러한 수산물 가공업 구조 변화에 따라 수산물 교역구조도 상응한 변화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또한 세계 수산물 교역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일본 수산청, 연안 자원평가 결과

○ 최근 수산청이 발표한 일본 연안의 자원평가 결과에 따르면 어업대상인 주요 86개 어종 중 절반에 가까운 40개 어종의 자원량이 낮은 수준으로

- 특히 정어리, 임연수어 등 14개 어종은 자원량까지 감소하면서 심각한 수준에 처한 것으로 알려짐

○ 평가에서 자원 수준이 낮게 평가된 것은 태평양 및 쓰시마(對馬) 난류계 정어리와 고등어, 태평양 명태 등 40개 어종이고,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어종은 17개 어종임

- 자원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 어종은 정어리, 명태, 세토내해(瀨戶內海) 자주복, 홋카이도(北海道) 남부 임연수어, 이세(伊勢)·미카와(三河)만 갯가재 등 14개 어종임

○ 이번 평가에서 자원 상황이 낮게 평가된 어류는 "자원 보호를 위해 향후 어획량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정어리나 고등어는 이미 가격 상승 기미까지 보이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수산물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실정임

○ 또한 고등어, 명태, 정어리의 경우 수산청의 TAC 산정량이 자원 유지를 위해 산정된 상한선 보다 높아, TAC 삭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일본 수산청은 올해부터 업계에서 강력하게 희망하고 나선 IQ(Import/Quota)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등 자원관리 관련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나서 향후 연근해 자원관리에 관련된 일본의 행보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음

🟦 EU 부수 어획물 투하 금지 시범사업안 발표

○ 지난 3월 27일 브루셀에서 개최된 유럽위원회는 어획 과정에서 어획된 부수 어획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안을 발표하였음

-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은 EC의 이 같은 시범사업을 환영하며, EC 회원국 모두가 협력하여 어획물을 바다에 다시 버리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현재 EC 해역에서 부수 어획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어떠한 법률 규제도 없이 공공연하게 이뤄짐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을 저해해 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할당 쿼터량을 맞추기 위해서 어체가 작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수산 자원을 다시 바다로 버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획량의 50% 이상이 다시 바다에 버려졌음

○ EC는 부수 어획물 투하 금지 사업과 함께 근본적으로 부수어획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였음

- 그물코를 넓힘으로써 선택적 어획을 유도하고, 비목표 어종의 부수어획량을 쿼

터량에 포함시키는 내용과 함께 어장의 일시적 휴어 기간을 지정해 치어 및 산란어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 향후 EC는 부수어획 금지 법안 시범 운영을 위한 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 WWF는 북해 트롤어업 등을 그 대상으로 제안하였음

○ 내년부터 시행될 미국의 부수어획 투하 금지 법안과 유럽 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시범사업 모두 세계 수산자원 보호 대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음

간추린 지구촌 소식

푸젠성, 어업법 실시 방법 수정

○ 푸젠(福建)성은 어업법 실시 방법을 수정하여 대만과의 수산협력을 강화할 내용을 추가하였음

- 추가 내용은 주로 푸젠성이 대만과 수산협력을 강화하는데, 특히 대만의 투자를 유도하며 향후 종묘양식, 어업생산, 사료생산, 가공, 교역, 여가어업, 어업노동력 등 분야에 대한 합작임

○ 1986년에 중국 어업법이 실시된 후, 푸젠성은 어업법 실시 방법을 1989년에 제정하였음

- 이번에 수정된 어업법 실시 방법은 푸젠성과 대만의 수산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이 지적하였음

○ 한편 지난해 말까지 푸젠성에 있는 대만 수산기업은 422개로 총 투자금액이 3억 8,000만 달러에 달함

홍콩, 뱅어에서 포르말린 검출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최근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뱅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 검사 결과, 15개의 샘플 중 9개가 포르말린을 사용하였으며 포르말린 함유량이 ㎏ 당 160~620㎎으로 나타났음

○ 이에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뱅어 판매에 대해 금지령을 내렸으며, 광저우시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음

- 홍콩에서 소비되는 뱅어는 주로 광저우시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일부 광저우시 생산자에 따르면 소매업자들이 직접 냉동가공공장에서 뱅어를 구입하여 유통시키고 있어 유통단계에서 포르말린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였음

신장, 9가지 수산물 유기인증 획득

○ 신장(新疆) 붜스텅후(博斯騰湖)에서 생산된 빙어, 백연, 잉어, 초어, 농어 등 9가지 수산물은 중국 환경보호총국의 유기인증을 받았는데

- 인증 수역 면적이 약 10만 ha로 중국에서 가장 넓은 유기수산물 생산 수역임

○ 이 중 빙어가 주요 수출품목으로 2005년에 수출금액이 150만 달러에 달하였음

- 빙어는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일본 빙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2005년에 붜스텅후의 수산물 생산량은 7,500톤으로 전년 대비 15.4% 늘었으며, 생산금액은 3,214만 위안(40억 1,750만 원)에 달하였음

일본수산청, 3개 어종의 자원회복계획 작성

○ 일본수산청에서는 태평양 남부 금눈돔, 대구 무쓰만(陸奥灣) 산란군, 명태 동해 북부계군에 대해 각각의 자원회복계획을 작성하여 공표하였음

- '태평양 남부 금눈돔 자원회복계획'의 경우 금눈돔 자원 보존·관리를 위해 소형어 재방류나 휴어기간 설정, '대구 무쓰만(陸奥灣) 산란군 자원회복계획'에는 산란후 친어 및 소형어 재방류, '명태 동해 북부계군 자원회복계획'은 조업량 삭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로써 일본 정부가 작성한 자원회복계획은 총 17개로, 어종별 자원회복계획 16개, 포괄적 자원회복계획 1개로 구성됨

일본 산·학·연 연구그룹, 해조류 이용 바이오에탄올 생산 구상

○ 도쿄해양대, 미쯔비시(三菱)종합연구소를 중심으로 미쯔비시중공업이 참가한 연구그룹이 양식 해조류에서 석유 대체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에탄올을 대량 생산하는 구상을 제안하였음

- 현재 바이오에탄올은 사탕수수, 옥수수 등 식물을 원료로 생산되고 있는데, 해조류를 발효시켜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있었으나 실행에 이르지는 못한 실정임

○ 연구그룹은 일본 내에 1만 ㎢의 양식어장을 설치하여 연간 2천만 ㎘의 바이오에탄올을 해조류에서 생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 일본 정부도 2030년도에는 일본산 바이오연료를 600만 ㎘ 생산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어 이번 구상이 목표를 실현하는 유력한 방법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바라키현, 지역수산물 취급점 인증제도 시작

○ 이바라키(茨城)현이 이바라키 연안지구 어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바라키지역어류 취급점 인증제도'의 인증식이 시행되었음

- 인증제도는 넙치, 농어 등 우수한 지역산 수산물에 일정한 표식을 부여하여 소비할 때 참고가 되도록 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음

○ 이바라키 지역어류란 현내 어항에서 양륙된 어패류와 이를 주 원료로 사용한 가공품으로 정의하고

- 지역수산물 구매 수량과 제공메뉴의 30% 이상을 지역어류로 이용하는 소매점, 음식점, 숙박업자 등 78개 점포를 지역어류 취급점으로 인증하였음

일본, 수입농수산물 가격 상승

○ 농림어업금융공고가 2007년 1월 1일 기점으로 전국의 식품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 6,9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농수산물 조달에 관해 조사한 결과

- 유효회답 2,450개의 58.6%가 '2~3년 전에 비해 수입농수산물 가격이 비싸졌다'고 답변하였으며, 수산물가공품의 경우 55.5%가 비싸졌다고 응답하였음

○ 원료 구매가격이 비싸졌다고 답변한 기업의 80% 이상은 어떠한 식으로든 이에 대비하고 있는데, 세부방안으로는 가격 전가, 제품용량 재검토가 51.1%로 높았으며 자국산 원료로의 대체는 16.6%로 적은 편이었음

- 또한 수입품과 자국산 농수산물을 비교할 경우 수입품을 사용하는 기업의 69.9%가 '가격이 높다'고 보았으며 '양적 확보 불안'도 48.8%로 높았는데, 특히 수산물가공품의 경우 '양적 확보 불안'이 59.2%로 높게 조사됨

태국-일본 FTA 체결, 태국산 새우 관세 즉시 철폐

○ 일본 정부는 4월 3일 태국과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수산물과 관련하여 일본은 태국산 새우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음

- 태국은 칠레에 이어 일본의 6번째 FTA 체결국이 되었으며 곧이어 베트남, 인도네시아와도 FTA를 체결할 예정임
- 일본은 아세안의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태국은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 자국 수산물 수출 시장을 경쟁 국가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였음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새우 시장 놓고 각축전 벌여

○ 일본 새우 시장을 놓고 베트남과 필리핀이 흰다리새우 양식에 주력하는 한편 태국은 블랙타이거 새우 양식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있음

- 태국의 타이 대학과 중국의 해양연구센터는 블랙타이거 새우 양식을 위한 공동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양식생산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FAO, 5월 29일부터 '양식수산물 세계 교역 컨퍼런스' 중국에서 개최돼

○ FAO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세계 수산물 교역과 양식 수산물 그리고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가질 계획임

-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농림부가 전적인 지원을 하며 양식 관련 세계 주요 업체 200개사가 참여할 예정임

WWF, 참다랑어 멸종 위기 경고

○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는 EU의 참다랑어 어획량을 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지 않을 경우 지중해 및 동대서양의 참다랑어 어족 자원이 수년 내에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의 회원국인 EU의 올해 다랑어 쿼터량은 지난해보다 1,522톤 적은 16,770톤을 할당받았으나, 이 또한 학계에서 권유하는 수준보다 두 배가 높음
- WWF는 프랑스를 비롯한 EC 회원국의 단기적 어업 이익에만 얽매이는 모습을 비난하며 책임있는 어업 관행을 요구하였음

칠레, 한국과의 FTA 체결 긍정적 평가

○ 칠레 국제경제관계부장의 평가에 따르면 올해가 한국과 FTA를 체결한 지 3년째가 되는 해로 그동안 양국 교역량은 FTA 체결 전보다 232% 늘어났음

- 수산물 교역 또한 125% 늘어났는데 특히 킹크랩과 청어의 대한국 수출이 두드러졌음

○ 칠레 정부는 FTA 체결을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한국에 이어 올해 말에 일본 정부와도 FTA를 추진할 계획임

아일랜드, 센서를 통한 수산물 신선도 파악

○ 아일랜드 더블린(Dublin) 대학은 포장물 안에 넣은 센서의 색상 변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 부패여부를 알 수 있는 "Smart Packaging"을 개발하였음

- 이 개발품은 센서에 의해서 작동되는데 이 센서는 부패한 어류에서 발생하는 냄새에 반응하여 작동되며, 이러한 센서의 색상 변화 과정을 통해 수산물의 부패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장치는 육안으로도 볼 수 있으나 저렴한 비용의 스캐너를 통해서도 색상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음